

시치슈 성터

현재, 도요타시 미술관이 있는 언덕에는 18 세기의 요새이자 시치슈 성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고로모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은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무사 지배가 폐지될 때까지 고로모번(현재의 아이치현 동부) 다이묘의 요새였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 전반의 고로모번은 성을 가질 수 없는, 말하자면 신분이 낮은 다이묘가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1749년에 비교적 명문인 나이토 가문의 영주가 고로모에 부임하면서 막부는 그에 걸맞은 성을 건설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현재의 도요타시 중심부에 성을 쌓으려 했지만, 수해로 인해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나이토 가문의 성은 건설 장소를 도지야마로 옮겼고 1785년에 '시치슈 성'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의 이름은 과거 이 언덕에서 일곱 개의 지역(七州, 시치슈)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18 세기 후반의 평화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시치슈 성은 성곽이 비교적 간소했으며 천수각은 없었습니다. 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부지에는 남서쪽 모퉁이의 2층 망루(스미야구라)와 정문 밖에 없었습니다. 정문은 1년에 한 번 있는 고로모 축제 때 약 6m의 수레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성은 1871년에 해체되었지만, 망루의 돌담은 그대로 남아 1977년에 복원된 콘크리트 망루(스미야구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